

수익성 악화에 빛만 쏘고...농심, 근심 깊어간다

농신보, 지난해 광주·전남 농어업인 대출 연체액 1년새 66% 급증 유가 등 생산비 급증에 농산물값 불안정...전기로 체납 1만3756호

원자재값 폭등과 잦은 이상기후, 농산물 수급 불안 영향으로 농가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농가 부채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전남 농어업인들의 대출 연체액은 1년 새 66% 뛰고, 전기요금마저 내지 못하는 농가는 1만3700여 호에 달했다.

18일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광주·전남센터에 따르면 이 기금으로부터 보증 대출 지원을 받은 지역 농어업인들의 지난해 연체 금액은 215억9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66.1% (85억9500만원) 뛰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 연체금액 113억4400만원보다는 90.4% 급증한 규모다.

광주·전남 농어업인들의 지난 1년간 연체금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49.8% (526억4000만원

→788억5500만원)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 농어업들의 연체율은 2021년 0.32%에서 지난해 0.51%로 늘었다. 지난해 광주·전남 연체율은 전국 평균 0.46%를 웃돌았다.

농협중앙회 기획 관리하는 농신보는 내세울 담보가 없는 농림수산업자가 문을 두드리는 신용보증 기관이다.

지난해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된 것은 부쩍 나빠진 농가 경영 상황과 연계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이 지난해 3분기 통계청 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지표인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고작 1% 상승했지만, 농임용품과 농촌임료급 비율을 나타내는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28.3% 상승

했다.

이에 따라 농가 경영 여건은 1년 전보다 21.2% 악화했다고 전농 측은 분석했다.

농가에서 많이 쓰는 실내 등유 가격은 1년 새 37.3%나 급등했다.

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실내 등유 1당 평균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1471.04원으로, 1년 전보다 37.3% (399.3원) 올랐다.

광주지역 등유 가격도 같은 기간 1134.50원에서 1576.64원으로, 1년 새 39.0% (442.14원) 뛰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농사용 전기 요금까지 급등해 농민들의 시름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지역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광주·전남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호수는 1만 3756호로, 전년 말(8246호)보다 66.8% (5510호) 급증했다.

이들의 체납액도 같은 기간 12억5360만원에서

17억9610만원으로, 43.3% (5억4250만원) 늘었다.

광주·전남본부 농사용 전기요금 체납호수와 체납액 증가율은 전국 15개 지역본부 평균 증가율(체납호수 47.3%, 체납액 40.2%)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전남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농민 수는 2019년 말 7543호에서 2020년 말 7936호, 2021년 말 8246호, 지난해 11월 말 1만3756호 등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7일 무안군 삼향읍 농협 전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와 농자재값 폭등 속에서 농협이 신용사업·경제사업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농민 조합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본격적인 영농철인 오는 3월부터 농민들의 자금 수요가 농·축협 상호금융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농가 부채 이자 인상분을 전액 지원할 것과 대출금리를 3%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외국인 연말정산 50만명 지난해 평균연봉 3179만원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의 평균연봉은 317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 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9563억원으로, 평균 3179만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의 2926만원보다 8.7% 올랐다. 이들의 신고세액은 1조 802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 국적(18만9000명)이 37.5%로 가장 비중이 컸다.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 미국(4158억원)으로 38.5%였다.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수출 사상 첫 600억 달러 돌파

지난해 673억8000만달러...전년비 13.4% 늘어 자동차·석유제품·반도체 등 선전...80억달러 흑자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14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과 달리, 광주·전남은 오히려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673억 8000만 달러다.

수입은 32.4% 증가한 594억4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및 원자재 수급 차질로 수입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수입액이 600억 달러에 근접했

나, 반도체, 석유제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선전으로 전체 수출은 이를 뛰어넘는 67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부분 무역흑자는 광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무역흑자는 82억3000만 달러로, 전년(85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입이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타이어 등 고무제품,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선전으로 무역 흑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무역협회 측의 분석이다.

한편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 지

난해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규모 역시 크게 상승했다.

전체 수출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6%였으나 지난해 7.2%로 0.6%포인트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전남 수출은 5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지자체 수출 순위는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주로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수요 확대와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강성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지난해 광주·전남의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긴 하나 전국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은행 박만 노조위원장 취임

광주은행은 18일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47년차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사진)를 열고 박만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박만 20대 위원장과 이성욱 19대 위원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 지역본부 의장, 박흥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20대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된 박 위원장은 앞으로 3년 임기를 수행한다.

박 위원장은 "은행 발전과 직원 근로조건 개선, 기업문화 혁신에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섬유역본부, 가뭄 비상대책회의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본부 상황실에서 '영·섬유역 가뭄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백인노 본부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댐 운영 계획과 용수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한 해 영·섬유역 평균 강수량은 예년의 68%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8월부터 주암댐과 수어댐, 평림댐, 섬진강댐은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따라 '심각'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이달 12-13일 비가 내려 댐 저수율이 조금 올랐지만, 회복까지는 아직 많은 강우량이 필요하다.

영·섬본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댐별 실정에 맞는 가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하천유지용수를 100% 감량

하는 등 '공급량 관리'와 '수원 간 연계 운영' '수요 절감' '도시 지역 지원' 등이 있다.

수원 간 연계 운영의 하나로 주암댐 물을 목포에 공급하는 대신 일부를 장흥댐과 연계해 공급하고 있다. 평림댐은 수양제와 연계해 대체 공급하고 있다.

여수·광양 산업단지 등에서는 생공용수 수요량의 20%를 절감하지는 '자율저수 수요조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뭄이 심각한 완도 섬 지역 5곳에는 매주 6만 3000병의 식수를 지원한다. 완도 보길도에는 지하저유지를 설치해 도와 하루 1100㎥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백인노 본부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도 환경부·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운 겨울 이겨내고 따뜻한 설 명절 되세요"



광주국세청, 소외이웃에 후원·위문품

광주지방국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날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령의 조부모와 생활하는 조손가정을 방문해 후원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사진> 이밖에 광주국세청 각 국·실에서도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복지시설, 장애인보육시설 등 총 13곳의 가정·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후원품을 전달했다.

또 청사 환경미화 직원, 공무직 직원들에게도 소정의 성금과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광주 무등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상의, 사랑의열매에 1000만원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설 명절을 맞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광주지역 돌봄세대 난방비, 생계지, 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기탁 외에도 '달반찬 나눔'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마모동적평가실 등 2곳

금호타이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마모동적평가실과 첨가제분석실 등 2개 실험실에 대한 신규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종합 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인증 대상을 선정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사고발생이 없어야 하며 연구실 안전환경·시스템분야(30점),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수준분야(50점),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20점)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각각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는 안전한 연구환경에 기반한 우수 성과 창출, 자율적 안전관리역량 확보,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모델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실 내의 실험기기 및 장

비, 실험재료, 실험방법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요인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해 위험성 평가 및 사전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368.32(-11.07) |
| ↑ 코스닥 | 711.75(+2.04) |
| ↓ 금리(국고채 3년) | 3.390(-0.094) |
| ↓ 환율(USD) | 1237.40(-1.30) |

세열골

"전남 수산업에 활력 불어 넣겠다"

주홍보수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대내외 악재를 딛고 전남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수협중앙회 전남본부장에 취임한 주홍보(54·사진) 신임 본부장은 새해를 여는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여수 출신인 주 신임 본부장은 여주고등학교와 부경대학교(옛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1996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상호금융부에서 자경·경영 관리 업무를 맡고, 조합감사실을 거쳐 회원경영지원부 기금관리팀장, 회원지원부 경영개선팀장, 조합감사실 감사2팀장을 주요 보직을 맡았다.

수협 전남본부는 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

으며, 어업인 정책보험 가입률을 높여 각종 재난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 본부장은 "전남지역 어민 특히 선원 고령화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어업인 일자리 문제와 어촌인구 감소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3월8일 치르는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광주·전남 20개 수협 조합장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